



명선 스님 (흥국사 회주)

선지식을 찾아서

명선 스님

# 흰 천과 같이 모든 것 포용할 줄 알아야



명선 스님은 1963년 전남 나주 다보사에서 도천 스님을 은사로 득도, 68년 양산 통도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69년 함천 해인사 2차 불교전문대학 대교과 졸업. 해인사, 오대산 선원사, 통도사, 관음사, 도리사, 범어사, 보광사의 선방에서 보냈다. 평생 선승으로 살아온 스님은 육바라밀 중에서 무엇을 으뜸으로 삼는지 여쭙었다.

흥국사의 색 바랜 대웅전 단청이 눈에 들어온다. 화려함에 익숙해진 눈이라 그런지 색깔 없는 단청에 왠지 가슴 한켠이 서늘해지는 느낌이다. 화려하기는 쉽다. 소박하기는 더 어렵고 소박한 속에 지나가는 색깔을 머금기가 더 어렵다고 했던가.

명선 스님은 칠순이 넘은 지금까지도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했던 그 시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였다.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할 때 지월 스님의 배려로 학인들도 결제 때 웅맹정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때 <능엄경>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몇 번을 봐도 잘 몰라 예를 먹었지요. 그런데 밤 12시에서 1시 사이에 화두가 잘 들리고, 배우지도 않은 <능엄경> 부분이 그저 눈앞에서 술술 읽혀지고 그대요. 웅맹정진이 끝나고 나면 그 공부 가 남아있지 않는데, 그것이 환(幻)인 거라. 참선할 때 자신이 부처를 그리고 있으면 부처가, 조사스님을 생각하면 조사스님이 눈앞에 어른거려요. 이것이 환인 것을 알아야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임제 스님이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치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친다고 한 것은 어느 것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환상은 영원하지 않지만 깨달음을 얻으면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명선 스님은 십수 년의 세월을 해인사, 오대산 상원사, 통도사, 관음사, 도리사, 범어사, 보광사의 선방에서 보냈다. 평생을 선승으로 살아온 스님은 육바라밀 중에서 무엇을 으뜸으로 삼는지 여쭙었다.

“정진만 잘 하면 육바라밀이 저절로 됩니다. 지월 스님은 도를 닦는 사람은 방심하지 말고 항상 손님으로 갈 때 그 마음을 유지하라”고 하였어요.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사람으로 태어나도 정벌 만나기 어려우니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존음을 아껴 공부해야 한다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옛 선사들은 해가 지면 벌써 하루해가 졌다면서 두 다리를 뻗고 울었다고 하잖아요. 금생에 도를 얻지 못하면 다음 생에 축생으로 태어날지 모르니 열심히 공부하라는 말씀을 아직껏 품고 있어요. 절에서 스님들이 조적으로 예불 올리는 것도 처음 발심한 그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나태는 내리막길과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 예불을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만저만 핑계를 대서 빠지게 됩니다. 재가자로서 게으름을 피우면 가난을 면치 못하고 의식을 격정하여야 합니다. 또 출가자로서 게으름을 피우면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온갖 일은 정진을 하면 다 해결이 되는 것이니, 재가자나 출가자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명선 스님은 새벽 3시에 예불을 올리고 예불 후 아침 공양 전까지 참선을 한다. 날마다 새벽 예불에 참석하는 것은 스님의 수행이기도 하지만 아랫사람들의 교육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흥국사에서는 공양시간을 놓치면 누구를 막론하고 공양을 주지 않는다. 여러 대중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규칙을 정해놓아야만 절의 질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스님은 정진만 잘하면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고 분별심이 없어진다는 말씀을 하였다. 현대 사회는 우리

‘입차문래 막존지해(入此門來 莫存知慧)’라. 이 문에 들어 올 때는 알음알이를 가지지 말라고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버리면 흰 천과 같습니다. 흰 천에는 무엇이든 그릴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이 괴색인데 그것은 모든 것을 포용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사람을 취하면 나쁜 사람과는 적이 되어 버리고, 나쁜 사람을 취하면 좋은 사람과는 적이 되어 버려요. 그러나 좋고 나쁜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해요. 유도 포용하고 무도 포용하는 것이 중도인데, 중도 속에 모든 불법이 있고 선(禪)이 있습니다. 공부할 때는 날카롭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취할 것이 없어요.”

명선 스님은 요즈음 경허 선사와 상진 수월 스님의 평전(評傳)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만주로 건너간 뒤 열반에 들 때까지 동포들과 독립군을 위해 무주상보시를 베풀었던 수월 스님의 발자취를 찾아 만주일대를 몇 번이나 다녀오셨다. 수월 스님 영정을 그리기 위하여 초상화가를 데리고 수월 스님과 인연있는 박노인을 찾아가기도 하였다. 지금 명선 스님 처소에는 수묵사에 모셔진 수월 스님의 영정 2점이 있다. 어디에도 뿌리를 내리지 않고 결망 하나 메고 물같이 바람같이 떠돌면서 자비를 베풀었던 수월 스님의 일생이야말로 수행자의 삶이라고 생각된다. 아무리 공부를 하고 무엇을 한다 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는 일하기에 깨달음을 얻을 때까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은 것이 명선 스님의 바람이다.

세상사가 원한다고 해서 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간절히 원하고 노력하면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 세상사라고 한다. 스님 처소 앞에는 가지가 무겁도록 꽃을 피우고 있는 매화나무 한 그루가 있다. 매화나무는 한겨울의 추위를 오롯이 견디어 내면서 꽃피우고 열매 맺기를 열망하였기에 저토록 아름다운 꽃을 드리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열망하지 않는 자에게는 우주의 기운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다고 했던가. 깨달음도 열망하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 그렇다면 우리네 삶의 목표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자명할 일이다.

참선을 해야 하고 깨달음을 얻어야 하는 것은 우리도 부처님처럼 행동하기 위해서라는 명선 스님의 말씀을 어디에다 곁여 들거나.

글·사진·문운정(수필가·본지 논설위원)

“ 나태는 내리막길 온갖 일 정진해야 집착 없다는 것은 당처에 열심히 사는 것 ”

에게 끝없는 분별심을 요구하지 않는가 싶다.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언가를 분별하고 차별하여 판단해야만 하는 연속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에 틀림없다. 그런데 분별하지 않고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살 수 있다면 그 해법이 무엇인지 물었다.

“분별심을 내면 끝이 없고 분별심을 내는 사람만 괴롭습니다. 조사스님들은 24시간 일을 하고 대화를 하더라도 힘이 없다고 합니다. 힘이 없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해도 그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뜻이지요. 소달구지가 가지 않으면 수레를 때려야 하는가 소를 때려야 하는가? 해제를 하면 스님들이 결망을 메고 만행을 합니다. 만행은 자기가 수레를 때리고 있는지 소를 재촉하고 있는지를 시험해보는 또 다른 공부입니다. 어떤 사람을 대했을 때 자기 마음이 그것에 끄달리거나 착심이 있는지 지켜보는 것이지요. 집착함이 없다는 것은 당처에서 만족하고 당처에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 SHC 삼환종합양초

삼보귀의 하얗고 저희 삼환양초는 사찰에 꼭 필요한 초를 20년이 넘게 생산하고 있는 양초전문기업입니다. 꾸준한 신상품을 개발하여 (실내용 양초=밀납양초, 약쑥양초, 식물성양초)라는 제품을 선보이게 되었습니다.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우창산업 SHC 삼환종합양초  
TEL 031)766-0242~3  
FAX 031)766-0233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리 35-16

## 건강을 생각한다면 그을음 없는 삼환양초를 선택하십시오 !!!



- ▶ 밀납양초(蜜蠟洋燭)
  - 1) 밀납초(1~4호까지 8개入 받침대 2개入)선물세트
  - 2) 밀납초금강경(7개入)선물세트
  - 3) 밀납초원기둥 7.4φ × 30Cm
  - 4) 밀납초토터레 5.6φ × 27Cm
  - 5) 밀납초 1호 반야심경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6) 밀납초 1호 금강경한 5.9φ × 20Cm 연소시간 약 80시간 이상
  - 7) 밀납초 3호 반야심경 4.7φ × 14Cm 연소시간 약 30시간 이상
  - 8) 밀납초 4호 반야심경 4.7φ × 10Cm 연소시간 약 24시간 이상



- ▶ 약쑥양초
  - 1) 원기둥 7.4φ × 30Cm
  - 2) 토터레 5.6φ × 27Cm
  - 3) 약쑥향 1호 5.9φ × 20Cm
  - 4) 약쑥향 3호 4.7φ × 13Cm
  - 5) 약쑥향 4호 4.7φ × 10Cm
  - 6) 약쑥향 등초 3.1φ × 12.5Cm



- ▶ 식물성양초
  - 1) 식물성양초 원기둥 7.4φ × 29Cm
  - 2) 식물성양초 토터레 5.6φ × 27Cm
  - 3) 식물성양초 밀 대 4.6φ × 26Cm